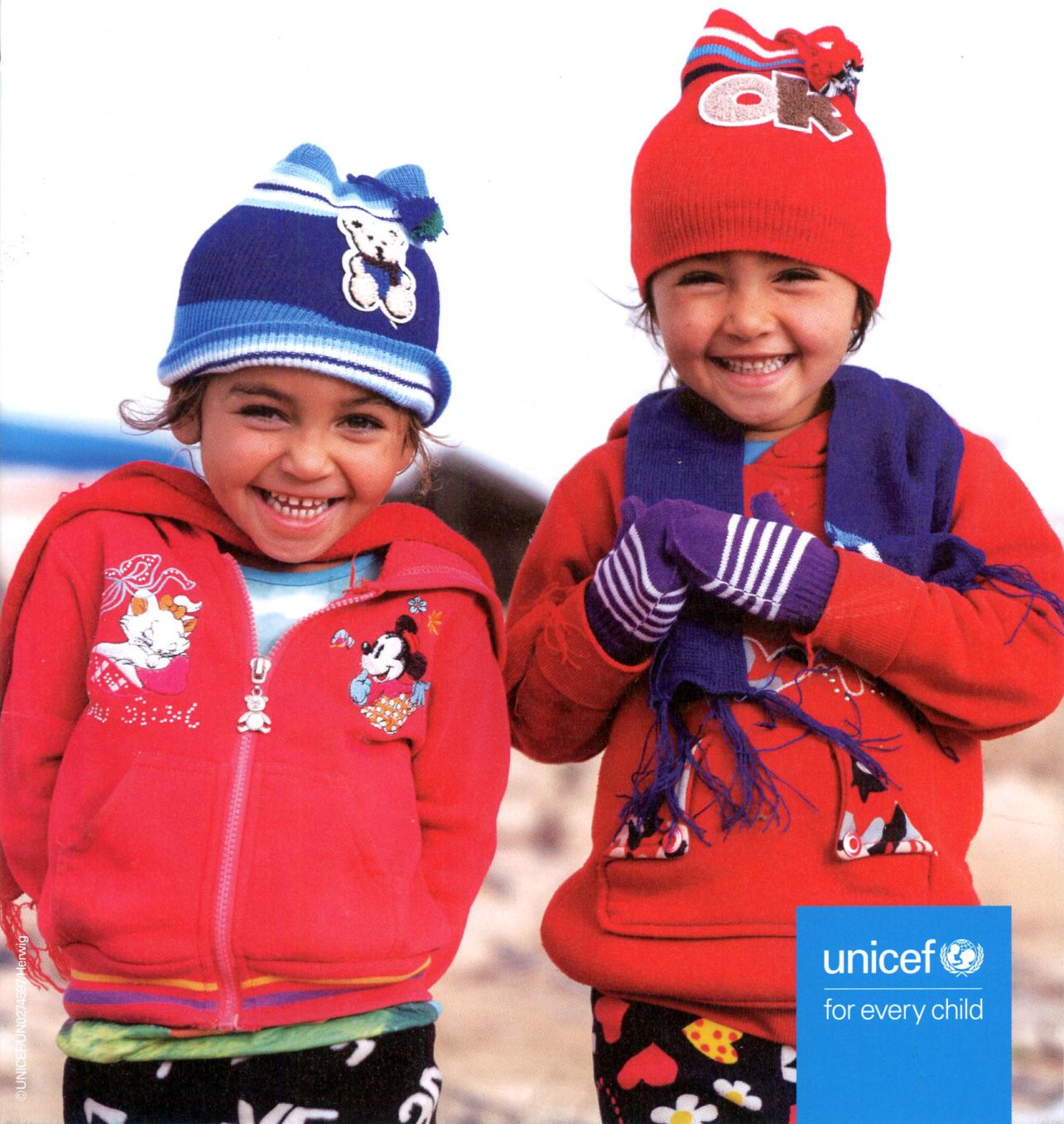


unicef news

2020 VOL.112



unicef
for every child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UNICEF/National Committee Korea

유엔아동권리협약 챕터 30주년 기념 서미트 첫 날인 2019년 11월 19일에는 아동이 마주하게 될 8가지 도전과제(분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정신질환 증가, 이주민 증가, 무국적, 일자리를 위한 미래 기술, 정보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짜 뉴스)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 30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많은 학교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됐어요. 깨끗하지 못한 공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놀 권리를 침해해요.

박윤정(서울청계초등학교 5학년)

모든 어린이는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시은(서울불암중학교 1학년)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지현(경기 청심국제중학교 2학년)

충분한 놀이와 여가는 어린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모든 어린이가 놀 권리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체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또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윤주영(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1학년)

형편이 어려운 여자 어린이가 생리대를 사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어린이에게 생리가 두렵지 않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공공장소에 비치하면 좋겠어요.

김시은(서울목동초등학교 6학년)

일민미술관과 함께하는 #살아있으라 릴레이캠페인



일민미술관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SNS 릴레이 캠페인 '#살아있으라'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이 '#살아있으라' 해시태그와 함께 고래 한 마리를 그려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일민미술관이 고래 그림 한 장당 1천 원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롯데멤버스 Schools for Asia 기금 전달



2019년 12월 11일 롯데자이언츠와 롯데 멤버스가 'Schools for Asia' 캠페인 2019년도 기금 1억 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2011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계열사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이 기금은 아시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쓰일 예정입니다.

유니세프-충청북도교육청 '아동친화학교' 업무협약



2019년 12월 19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아동친화학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학교 모델, '아동친화학교'는 학교의 정책과 운영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 가치가 학교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제5회 유니세프 송년 감사의 밤 개최



2019년 12월 19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제5회 유니세프 송년 감사의 밤'이 열렸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경기 후원자와 후원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000명을 '호두까기 인형' 별레공연에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2019 올해의 파트너'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끝전기부로 7년간 약 1억 8,000만 원을 기부한 (주)기창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Every Child ALIVE' 캠페인



2019년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부산 해운대빛축제와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서 두 차례에 걸쳐 'Every Child ALIVE'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구호물품 전시를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의미 있는 사진을 남기며 유니세프 구호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니세프-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선서' 캠페인



스포츠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 선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김연아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비롯한 유명 스포츠 선수의 공감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이번 캠페인은 2020년까지 이어지며 스포츠계의 변화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